

재능 문제가 아니다.

방법이 틀렸을 뿐이다.

당신은 얼마나 어나더하게 공부하는가.

40문항이다. 맞고 틀리는 게 없다.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고르면 된다.

이 검사가 하는 일은 하나다.

네가 **뭘 모르는지 모르는** 상태를 끝내는 것.

쓰는 법

- ① 40문항에 1~5로 표시한다.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.
- ② 채점표에 옮겨 적고 축별 소계를 낸다.
- ③ 막대를 칠하고, **가장 짧은 축**에 동그라미를 친다.

1 전혀 아니다 · 2 아닌 편 · 3 보통 · 4 그런 편 · 5 매우 그렇다

(R) 표시 문항은 채점할 때 점수를 뒤집는다. 채점표에 설명이 있다.

THERE IS ANOTHER WAY

어나더 스터디 · 무료 배포 · 자유롭게 복사·공유해도 됩니다.

	1	2	3	4	5
1 새 과목을 시작할 때, 문제를 풀기 전에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본다.	☐	☐	☐	☐	☐
2 문제를 푸는 목적은 맞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한 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	☐	☐	☐	☐	☐
3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익힌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.	☐	☐	☐	☐	☐
4 교과서의 개념과 시험문제에서 뽑는 개념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있다.	☐	☐	☐	☐	☐
5 읽는 속도는 훈련으로 올릴 수 있다고 믿는다.	☐	☐	☐	☐	☐
6 복습할 때 교재를 다시 읽는 대신, 아무것도 안 보고 백지에 적어본다.	☐	☐	☐	☐	☐
7 과목마다 요구하는 능력(암기·이해·속도·논리)이 다르다는 걸 알고, 그에 맞춰 방법을 바꾼다.	☐	☐	☐	☐	☐
8 틀린 문제를 볼 때 '몰라서 틀린 것'과 '생각하는 방식이 틀린 것'을 구분한다.	☐	☐	☐	☐	☐
9 시험 문제는 나를 틀리게 하려고 설계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푼다.	☐	☐	☐	☐	☐
10 글을 읽은 뒤에는 책을 덮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거나 백지에 적는 단계를 거친다.	☐	☐	☐	☐	☐
11 남이 쉽게 설명해준 것보다, 내가 힘들게 이해한 것이 오래 남는다고 생각한다.	☐	☐	☐	☐	☐
12 내가 학원·인강에서 진짜로 얻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리와 수준 파악이라고 생각한다.	☐	☐	☐	☐	☐
13 나는 내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. (R)	☐	☐	☐	☐	☐
14 수학 문제를 풀 때 손대기 전에 어떤 경로로 갈지 머릿속으로 먼저 그린다.	☐	☐	☐	☐	☐
15 비문학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한 문단은, 이해를 포기하고 워딩만 따라가도 된다는 걸 알고 있다.	☐	☐	☐	☐	☐
16 공부할 때 '이걸 남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할까'를 생각하면서 한다.	☐	☐	☐	☐	☐
17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.	☐	☐	☐	☐	☐
18 틀린 문제에 대해 '어떤 내가 문제였는지 →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→ 어떤 방법으로 바꿀지'를 글로 적어본다.	☐	☐	☐	☐	☐
19 두 선지가 헛갈릴 때, '근거가 있는 쪽'과 '그럴싸하기만 한 쪽'을 구분하려 한다.	☐	☐	☐	☐	☐
20 어려운 지문은 먼저 빠르게 훑어 예열한 뒤 정독하는 편이다.	☐	☐	☐	☐	☐

- | | | | | | |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1 | 이미 안다고 느끼는 내용도, 읽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한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22 | 공부 머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쓰는 만큼 발달한다고 믿는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23 | 찍어서 맞힌 문제도 맞힌 문제로 친다. (R)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24 |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이 오히려 사고방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걸 안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25 | 어떤 내용이 안 외워지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, 그걸 걸어들 배경 지식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26 | 국어 독해력이 낮으면 수학·과학 성적도 같이 막힌다고 생각한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27 | '이걸 잘하는 애는 대체 어떻게 했나'를 찾아본 적이 있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28 |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을 단원·문제유형 단위까지 좁혀서 적어두고, 계속 갱신한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29 | 오래 걸린 문제는 답을 맞혔더라도 '왜 이 방법이어야 했는지'를 직접 써본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30 | 지문에서 서로 달라 보이는 문장들이 실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걸 의식하며 읽는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31 | 백지에 적다 빠진 게 있으면, 그 부분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적는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32 | 공부한 시간보다 그 시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따진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33 |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, 푼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게 성적을 올린다고 생각한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34 | 모의고사를 볼 때 파트별로 내가 몇 분 걸리는지 알고 있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35 | 문학 작품은 기법을 찾으며 분석하기보다 숨은 의미를 먼저 잡고 읽는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36 | 단어나 개념을 외울 때 그림·이야기·어원을 붙여서 외운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37 | 혼자 공부가 안 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, 내 수준을 보여줄 시스템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38 | 개념을 다 끝내기 전에 기출부터 훑어서 '뭐가 나오는지'를 먼저 본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39 | 수식을 볼 때 그것을 우리말 문장과 그래프로 바꿔서 떠올린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| 40 | 복습할 때 전에 풀었던 그 문제를 그대로 다시 푸는 것은 실력 확인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. | ☐ | ☐ | ☐ | ☐ | ☐ |

축별로 옮겨 적는다

문항은 일부러 섞어 놔습니다. 축이 보이면 답이 오염되니까요. 이제 축별로 모읍니다.

빗금 친 칸 (R) 은 뒤집어 적는다.
1→5, 2→4, 3→3, 4→2, 5→1.
이 두 문항은 "나는 내 약점을 안다"처럼, 높게 답할수록 오히려 자기를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큰 문항입니다.

축	문항 번호 — 각 칸에 1~5 점수를 옮겨 적는다								소계
메타학습	1 _____	7 _____	12 _____	17 _____	22 _____	25 _____	27 _____	32 _____	_____
익힘	3 _____	6 _____	11 _____	16 _____	21 _____	31 _____	36 _____	40 _____	_____
읽기	5 _____	10 _____	15 _____	20 _____	26 _____	30 _____	35 _____	39 _____	_____
자기진단	2 _____	8 _____	13 _____	18 _____	23 _____	28 _____	33 _____	37 _____	_____
시험 대응	4 _____	9 _____	14 _____	19 _____	24 _____	29 _____	34 _____	38 _____	_____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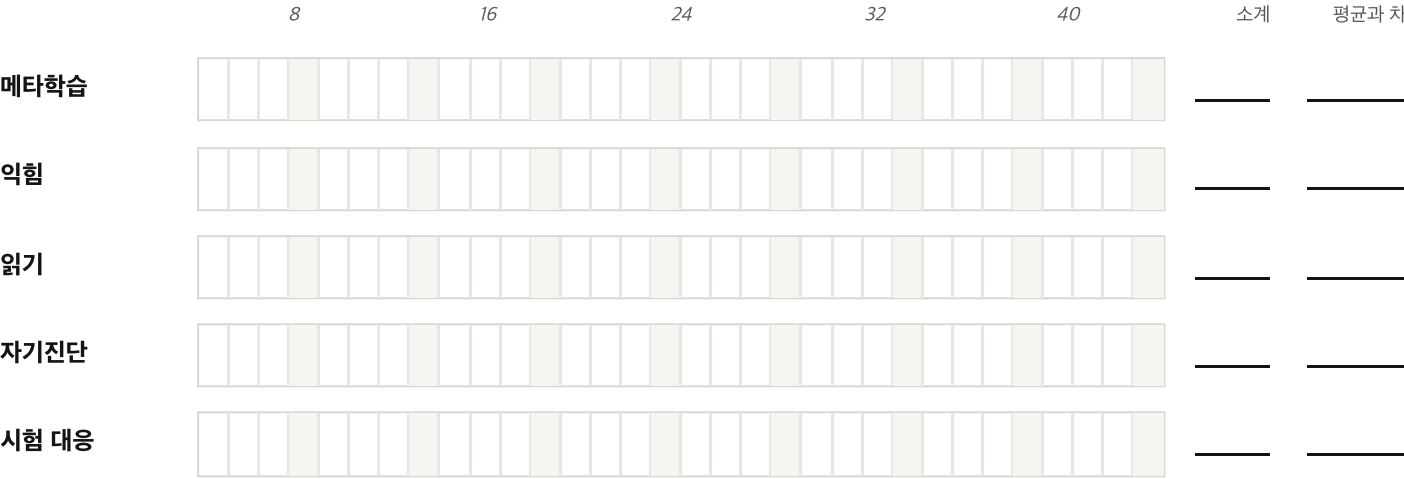
총점과 내 평균

다섯 소계를 더한다 → 총점 _____ (40~200)

총점 ÷ 5 = 내 평균 _____

칠하고, 가장 짧은 축에 동그라미

- ① 소계만큼 칠합니다. ② 내 평균(총점÷5) 위치에 세로선을 하나 긋습니다.
- ③ 오른쪽 칸에 소계 - 내 평균을 적습니다. 음수면 음수 그대로.



-5 보다 아래로 내려간 축이 오늘의 답입니다. 없으면 가장 작은 수.
절대 점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의 편차를 봅니다. 전 문항에 5를 준 사람도 반드시 최저 축이 하나 나옵니다.

가장 낮은 축

여기에 적습니다. 하나만.

이 축의 해석을 다음 장에서 먼저 읽으면 됩니다. 나머지 넷은 나중에 읽어도 늦지 않습니다.

읽기

축별로 무슨 뜻인가

메타학습 — 공부하기 전에 '이 과목이 뭘 요구하는지'를 먼저 묻는가

낮으면 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이다.

책부터 편다. 문제부터 푼다. 이 과목이 뭘 요구하는지, 잘하는 애는 어떻게 했는지, 내가 그중 뭐가 부족한지 — 세 질문을 건너뛰는 채로 시간을 넣는다. 시간은 들어가는데 방향이 없으니 남는 게 없다.

높으면 — 방향은 잡혀 있다. 남은 건 그 방향을 손에 붙이는 일이다.

익힘 — 이해를 익힘으로 착각하지 않고 꺼내서 확인하는가

낮으면 — 이해한 것을 익힌 것으로 세고 있다.

강의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 단원이 끝난 걸로 친다. 그런데 이해는 넣는 일이고 익힘은 꺼내는 일이다. 꺼내본 적이 없으면 시험장에서 처음 꺼내게 된다. 그때 안 나오는 걸 두고 사람들은 실수라고 부른다.

높으면 — 꺼내는 습관이 있다. 다만 꺼내는 간격이 촘촘한지는 따로 볼 일이다.

읽기 — 독해를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훈련 대상으로 다루는가

낮으면 — 읽기를 능력으로 두고 훈련 대상에서 빼두었다.

읽는 속도는 이해 속도에 맞춰 굳는다. 그리고 대부분은 그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로 산다. 읽기가 막히면 전 과목이 같이 막힌다 —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다.

높으면 — 읽기를 기술로 다루고 있다. 버릴 문단을 고르는 훈련이 다음이다.

자기진단 — 문제를 채점 도구가 아니라 '부족한 나'를 찾는 도구로 쓰는가

낮으면 — 문제를 채점 도구로만 쓰고 있다.

몇 개 틀렸는지는 안다. 왜 틀렸는지는 '몰라서'로 끝난다. 몰라서 틀린 것과 생각하는 방식이 틀린 것은 고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, 구분이 없으면 둘 다 더 외우는 걸로 대응하게 된다.

높으면 — 여기가 이 검사의 심장이다. 그런데 이 축은 자기 점수를 믿기 어려운 축이기도 하다.

시험 대응 — 교과 개념과 시험개념을 구분하고 경로를 설계하는가

낮으면 — 시험을 교과서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.

교과서 개념과 시험에서 뽑는 개념은 다르다. 교과서를 다 외워도 점수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는 이유다. 출제자는 맞히라고 문제를 내지 않는다 — 틀리게 하려고 낸다. 그 전제가 없으면 함정이 함정으로 안 보인다.

높으면 — 규칙은 알고 있다. 경로를 손으로 그려보는 게 다음이다.

몇 점이 나왔든

160~200점 · 이미 어나더하다

여기까지 나왔으면 우리가 팔 게 별로 없다. 이 방향을 계속 가면 된다. 다만 위 막대에서 가장 짧은 축 하나는 보고 가라. 총점이 높아도 한 축이 무너져 있으면 거기서 새는 게 결국 등급으로 나온다.

100~159점 · 방향은 아는데 손이 안 따라간다

알고는 있다고 답한 문항이 많은데, 실제로 하고 있다고 답한 문항은 적을 것이다.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가 이 점수대의 정체다. 어느 축이 무너졌는지는 위 막대가 말한다. 전부 고칠 필요는 없다. 가장 짧은 축 하나면 된다.

40~99점 · 재능 문제가 아니다

이 40문항 중 몇 개는 오늘 처음 봤을 것이다. 그게 답이다. 몰랐던 것이지 못 하는 게 아니다. 지금까지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과 네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.

~~더 오래~~ 앉아 있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.

~~더 많이~~ 푼다고 바뀌지 않습니다.

가장 짧은 축 하나. 거기부터입니다.

그 축의 훈련은 anotherstudy.kr 에 있습니다. 무료로 열려 있는 것부터 해보면 됩니다.